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45:5-8
2026 년 7 월 12 일 오전 11 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 주여 도우소서 >

메대는 본래 바벨론과 동맹 관계였습니다. 메대와 바벨론은 함께 앗수르를 멸망시킨 후 그 영토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놀랍게도 메대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사 13:17). 혼인 동맹을 맺을 정도로 가까웠던 메대가 바벨론을 공격한다는 이사야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쉽게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메대 사람은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당시 전쟁에서는 막대한 은금과 조공을 바쳐 침략을 막거나 포위를 풀게 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메대는 아무리 바벨론이 엄청난 부와 재물로 회유하려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판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대는 바벨론이 유다와 여러 민족에게 행했던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사 13:18). 결국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사 13:19). 그러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주체는 메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이번에는 메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5-8)

1.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 왕, 고레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 45 장에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인물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고레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사 45:1).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사 44:28). 구약에서 '목자'는 왕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세우시고, 고레스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사야 13 장에서는 '메대'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사야 45 장에서는 '페르시아 사람'인 고레스가 등장할까요? 고레스는 유다식 이름이 아니라 페르시아(바사)식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고레스는 메대 왕이 아니라 바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메대를 정복한 후 메대와 바사를 하나의 제국, 페르시아로 통합하였고,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13 장의 '메대'와 이사야 45 장의 '고레스'는 서로 다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당신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사 45:4).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놀라운 칭호를 주셨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5-8)

실제로 고레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왕으로서의 사명과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본래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에게 주어지던 특별한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 이 칭호를 사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यो”(5 절). 고대에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전쟁을 준비하거나 중요한 일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네 띠를 동일 것ियो”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무장시키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에게조차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단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6 절).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서방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2. 빛과 어둠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사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5-8)

45:7). 하나님께서는 빛과 평안만이 아니라 어둠과 환난까지도 자신의 주권 아래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나 악의 창조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각각 세상의 영역을 나누어 다스린다고 생각했고, 후대 페르시아에서는 선의 신 아후라 마즈다와 악의 세력 앙그라 마이뉴(아리만)의 대립을 강조하는 조로아스터교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대등한 또 다른 신이나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과 사탄이 아후라 마즈다와 앙그라 마이뉴처럼 서로 투쟁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나, 이는 비성서적인 개념입니다. 사탄이 앙그라 마이뉴와 비슷한 측면은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을 동등한 두 힘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로 선과 악의 역사 전체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7 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어둠도 창조하시고 재앙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자는 빛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어둠과 환난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5 장은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하나님과 대등한 또 다른 신이나 악의 세력이 존재하여 세상을 나누어 다스린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을 지으시고 어둠을 창조하시며, 평안을 베푸실 뿐 아니라 환난까지도 당신의 주권 아래 다스리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나 악의 창조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선과 악을 서로 대등한 두 세력의 대결로 이해하는 이원론적 세계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경의 신앙입니다.

3.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룰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9 절).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고 따질 수 없고, 작품이 작가에게 “숨씨가 형편없다”고 불평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전 7:14).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며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약 5:13)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고, 기쁨의 때에는 찬송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도 허락하시고 환난의 날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왜 유다인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왜 다윗 왕조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세우지 않으십니까?”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11 절). 명령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12 절).

하나님께서서는 고레스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을 아무 대가 없이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느니라”(13 절).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는 애굽과 구스와 세바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세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14 절). 이는 단순히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정치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방이 시온으로 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더욱 힘 있게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